

## '폰세·송성문' 주목…MLB 8개 구단 스카우트, 고척돔 집결

등록 2025.08.28 16:10:37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KBO리그 KIA 타이거즈 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3회말 투아웃 주자2루에서 키움 송성문이 1타점 적시 2루타를 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26.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메이저리그(MLB) 8개 구단 스카우트가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맞대결이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으로 집결한다.

키움은 2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한화와의 경기에 "MLB 시카고 컵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신시내티 레즈, 시애틀 매리너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뉴욕 양키스가 방문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고척스카이돔에는 이번 주중 3연전 내내 다양한 스카우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지난 26일에는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신시내티, 시애틀, 에인절스 스카우트가 경기장을 찾았고, 27일에는 애리조나와 디트로이트, 에인절스, LA 다저스, 시애틀이 방문했다.

이들의 시선은 올 시즌 종료 후 MLB 도전 의사를 밝힌 키움의 핵심 내야수 송성문에게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

송성문은 올 시즌 타율 0.317 23홈런 21도루 76타점 83득점을 올렸고, OPS(출루율+장타율)는 0.918을 작성하며 맹활약했다.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한화 이글스의 코디 폰세가 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04jinxijun@newsis.com

아울러 MLB 스카우트들은 이날 한화 선발로 등판하는 코디 폰세도 주목하고 있다.

올 시즌 KBO리그에 첫발을 내디딘 폰세는 15승 무패 152%이닝 211탈삼진 평균자책점 1.53의 압도적 성적으로 리그를 평정하고 있다.

몇몇 MLB 스카우트들이 고척스카이돔과 잠실구장을 찾는 일은 종종 볼 수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모인 장면은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빅리그 진출하기 직전 해인 2023년에서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다.

3연전 중 이날 처음으로 고척스카이돔을 찾은 MLB 구단은 샌디에이고와 휴스턴, 양키스 3개 팀이며, 디트로이트는 이번 3연전 내내 자리를 지킨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